

# 밀양지역의 지명연구(I)

-마을이름을 중심으로

과 재 용

## 〈目 次〉

- |               |              |
|---------------|--------------|
| I. 들머리        | 5. 「물」 계통    |
| II. 마을이름의 뉘뉘이 | 6. 「지형지물」 계통 |
| 1. 「동네」 계통    | 7. 「위치」 계통   |
| 2. 「구역」 계통    | III. 마무리     |
| 3. 「산」 계통     | ※ 참고문헌       |
| 4. 「토지」 계통    |              |

## I. 들머리

지명은 강한 보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형·지세가 날로 변하여 가고 인구의 이동도 심하며 문명에 덜 젖은 노인층의 세대교체로 순수 고유어 지명이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명의 수집과 연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지명은 어원론, 계통론, 비교언어학, 방언학, 국어사, 어휘사, 고대 및 현대 음운·음성학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밀양지역의 지명 중 마을이름에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물론 마을 이름은 지명 중의 일부분이기능하나 또한 대표적인 지명이기도 하다. 지명연구는 일차적으로 현지조사나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가 밀양지역에 수년간 거주하

면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모은 지명자료 중 마을이름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밀양지역의 지명에 관한 자료로는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1966)이 있고, 경상남도 땅이름(경남교육연구소:1968)이 있으며, 필자의 줄고(1991)가 있는 정도이다. 현재 밀양문화원(원장 조희봉)에서 밀양의 지명에 대한 단행본을 발간 중인데 그것이 기대된다. 이 논문은 주로 김영태 박사(1983:124-137)<sup>1)</sup>의 논문에 의거하여 그 연구방법 중 형태소별 방법론을 택하였다. 즉, 밀양지역의 지명 중 마을이름의 형태소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밀양지역 지명의 어원별 혹은 소재별 연구는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밀양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弁辰彌離彌凍國’이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나오는 弁辰 24나라 중 彌離彌凍國이 지금의 밀양이다.<sup>2)</sup> 여기서 ‘彌離’는 ‘미리-밀’의 표기로 그 의미는 ‘龍’ 또는 ‘水, 長’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밀/미/미르’ 등이 ‘물’의 뜻으로 쓰인 흔적은 많다. ‘미르, 미르’는 ‘龍, 辰’의 의미도 쓰였는데 龍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미리내’는 銀河를 의미한다<sup>3)</sup>. 그리고 彌凍은 물동, 즉 水堤의 뜻인데 밀양에는 水山堤와 같은 큰 못의 둑이 있다는 뜻이다. 수산제를 여러 다른 지역의 오랜 둑과 함께 삼한시대 이래의 것이란 전제 하에 추정한 것이다.

다음의 밀양이름은 ‘推火郡’이다. 우리 조상들이 한자로 국어를 기록하려는 시도는 고유명사인 인명, 지명, 관직명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지명은 한자의 국어표기에서 가장 광범위한 예를 제공한다.

#### 7. 密城郡 本推火郡

1) 김영태(1983), 지역연구에 대하여, 추강 황회영박사 송수기념논총, 집문당. 이 논문에는 지명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연구방법이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초보자가 지명연구나 조사를 할 때 지침서가 되고 있다.

2) 밀양지(1987:36)참조

3)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한 뒤의 5.2.「~개/포/미」를 참조할 것.

ㄴ. 永同郡 本吉同郡

〈삼국사기 지리지〉

위는 신라의 지명인데, 이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서 각각 중세국어의 '길-(永), 밀-(推)'과 같은 신라어 단어를 표기한 예이다. 이 漢字借用表記(줄여서 보통 借字表記) 중 古은 밀양의 옛이름을 나타낸다.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推火郡이란 이름이 주어진 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신라영토가 되면서 진작 군현으로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智證王 때라고 추정된다. 지증왕 6년(505) 春三月에 “王親定國內州郡縣”〈삼국사기 신라본기〉이라 한 것을 보면 推火郡도 지증왕 6년에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의 '彌離-(미리)'가 훈이 되어 '推'라는 음을 생성했다면 '火'도 음차를 했을 것이고 이것은 '벌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milbil : 밀빌).

推火郡 다음으로 얻은 이름이 密城郡이다.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郡縣의 명칭을 고칠 때에 推火郡을 密城郡이라 하였다.

고려초에는 신라의 州郡을 그대로 두게 되었는데 성종 14년(995)에 전국을 4都護府 10道를 구분하였는데 지금의 경상도 지방을 嶺東道, 嶺南道, 山南道の 3도로 나눌 때 密城郡을 密州로 격을 높이고 군수를 刺使로 개칭하였다. 밀양으로서 이 密州시대가 가장 화려하고 위세를 떨쳤던 때였다. 밀주의 속군으로는 昌寧郡·淸道郡이었고 속현으로는 玄風縣·桂城縣·靈山縣·豐角縣이었다 하니 그 지역의 광활함과 인구의 많음으로 미루어 밀양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몽고군의 침입 때 三別抄軍에 협조하였다 하여 고려정부가 1276년 충렬왕 2년에 밀양 전체를 반역항으로 규정하여 歸化部曲으로 격하시켰다. 部曲이란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은 없고 오직 부곡의 吏가 있어 행정을 맡아 있으면서 상급기관인 군현의 吏에게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 뒤 밀양 출신 朴義 장군이 忠烈王에게 간청하여 密城縣으로 승격되었고, 1285년 충렬왕 11년에 비로소 밀성군으로 회복되었다. 그 뒤 공양왕은 밀양이 그의 증조모 朴氏의 內鄉이라 하여 밀성군을 密陽

府로 승격시켰다. 密陽이라는 현 지명이 최초로 나온 것이다. '密'은 지금까지 내려온 이름이라 이상할 것은 없으나 '陽'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陽'은 앞의 이름인 推火郡의 '火'와 관련이 있을 듯 하다'. 조선조 건국으로 다시 밀성군으로 환원되었다가 태조 3년에 밀양 출신 金仁甫가 청하여 밀양부로 고쳐졌다. 또 7년 만인 태종 원년에 밀성군으로 되돌려졌다. 그 뒤 태종 15년(1415)에 密陽都護府가 된 것이다. 조선 시대는 계속 밀양도호부로 내려오다가 1894년 현을 군으로 고쳐 밀양군이 되었다. 1990년에 밀양시가 되어 현재 1시, 2읍, 9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 II. 마을이름의 됃됨이

이 글에서는 마을이름 38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밀양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사한 자료 273개와 '한국지명총람(1980)' 등에서 찾아본 자료 111개이다. 마을이름은 우선 '동네, 구역, 산, 토지, 물, 지형지물, 위치 등의 의미유형별로 나누고 이것들을 세분하였다. '동네'의 유형에 형태소인 '말(마), 골, 실, 각단, 땀(담) 등으로 세분하여 출현빈도수를 조사·대조하였다. 그 중 의미를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것은 밝혀두었다.

### 1. 「동네」 계통

#### 1.1. 「~말/마~마을」

①아랫말(하부) : 삼랑진 삼랑

②새마(새마을) : 상남 남산

③웃말(상부) : 삼랑진 삼랑

④반마 : 상남 평촌

4) 본 연구를 영남어문학회 제177차 발표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운영옥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다.

- ⑤웃말 : 삼랑진 용성
- ⑦절말 : 삼랑진 우곡
- ⑨아름마 : 삼랑진 행곡
- ⑪웃마 : 삼랑진 행곡
- ⑬중마 : 삼랑진 행곡
- ⑮안마 : 상동 옥산
- ⑰큰말 : 청도 요고
- ⑲양지마(삼손 양지마을) : 초동 덕산
- ⑳개말(포촌) : 초동 반월
- ㉑대굿말(대구지, 서호) : 초동 신호
- ㉓웃마 : 초동 오방
- ㉕새마 : 부북 위양
- ㉗술마 : 산내 임고
- ㉙음지마 : 산내 임고
- ㉛대밭마(죽촌) : 산외 엄광
- ㉝중마(중촌) : 산외 엄광
- ㉟웃말(웃가단) : 산외 미전
- ㊱잣마(재말리) : 단장구천
- ㊳참마 : 단장 단장
- ㊵숲말(임촌) : 단장 태룡
- ㊷새말(신촌) : 단장 범도
- ㊹덧마 : 단장 범도
- ㊻웃말 : 무안 덕암
- ㊽양달말 : 무안 연상
- ㊿안지말 : 무안 운정
- 59생교마 : 밀양 교동
- 57아랫마 : 밀양 교동
- 6배끝마 : 상남 평촌
- 8안마 : 상남 평촌
- 10들말 : 상동 고정
- 12중마 : 상동 고정
- 14새마 : 상동 신곡
- 16들마 : 청도 구기
- 18골마(골마을, 음촌 곡촌) : 초동 덕산
- 20수레마(수룩마 車月) : 초동 반월
- 22비끝마(外臺) : 초동 봉황
- 24양지마 : 초동 오방
- 26송말 : 하남 남전
- 28큰마 : 산내 송백
- 30양저마 : 산내 임고
- 32큰마(대촌) : 산외 금촌
- 34숲마(숲촌) : 산외 엄광
- 36음달마 : 산외 희곡
- 38구석마(구석촌) : 단장 고려
- 40중마 : 단장 구천
- 42간마 : 단장 태룡
- 44들말(야촌) : 단장 태룡
- 46골마(谷村) : 단장 범도
- 48중마(中村) : 단장 사연
- 50용달마 : 무안 덕암
- 52돌마 : 무안 운정
- 54새말 : 무안 중산
- 56중마 : 무안 고라
- 58웃마 : 밀양 교동

- |                      |                   |
|----------------------|-------------------|
| ⑤9향교말 : 밀양 교동        | ⑥0큰말(웃마) : 밀양 용평  |
| ⑥1작은말 : 밀양 용평        | ⑥2중말 : 부북 대항      |
| ⑥3웃말 : 부북 무연         | ⑥4새마 : 부북 오례      |
| ⑥5새마 : 부북 월산         | ⑥6정지마 : 부북 월산     |
| ⑥7송마 : 하남 남전         | ⑥8앞마을 : 부북 월산     |
| ⑥9조개마을(조개만리) : 초동 대곡 | ⑦0큰마 : 하남 남전      |
| ⑦1밤마(배끝마 발마) : 하남 백산 | ⑦2앞마(새마을) : 하남 백산 |
| ⑦3역말 : 하남 양동         | ⑦4대구마을 : 초동 성만    |
| ⑦5들마을 : 하남 양동        |                   |

여기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특이한 유래나 국어학적인 참고가 되는 의미, 어원, 음운, 형태, 조어론적인 특징이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④반마 : 바깥마을이란 의미로 ⑧안마와 대조된다. ‘바깥마을→밭마→반마’로 된 듯하다. ⑩수레마(수루마, 車月) : 반월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옛날 가락국 왕이 수레를 타고 이 마을의 뒷산을 넘었다는 유래가 있다. ⑥9의 조개마을(조개만리)는 지형이 조개처럼 생겼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 1.2. 「~골」

- |                 |                       |
|-----------------|-----------------------|
| ①점골(점곡) : 단장 감물 | ②도양골(조개골) : 밀양 남포     |
| ③삼막골 : 단장 구천    | ④못골 : 부북 제대           |
| ⑤정승골 : 단장 구천    | ⑥안골 : 부북 후사포          |
| ⑦갯골 : 단장 국전     | ⑧도룡골(도라운골 回谷) : 산내 가인 |
| ⑨텃골 : 단장 국전     | ⑩인골(인곡, 인동) : 산내 가인   |
| ⑪장자골 : 단장 국전    | ⑫가래밭골(추곡) : 산내 남명     |
| ⑬가라골 : 단장 국전    | ⑭한골(대곡) : 산내 용전       |

- ⑮큰골 : 단장 국전
- ⑰큰골 : 단장 안법
- ⑲큰골 : 단장 안법
- ⑳오작골 : 무안 가례
- ㉑마곡 : 무안 고라
- ㉒여룻골 : 무안 고라
- ㉔돌밭골 : 무안 내진
- ㉖사랑골 : 무안 내진
- ㉘돌막골 : 무안 동산
- ㉚돌밭골 : 무안 동산
- ㉜원당골 : 무안 동산
- ㉞뿔골 : 무안 미흘
- ㉟점골 : 무안 미흘
- ㊱삼골골 : 무안 삼대
- ㊳오숨골 : 무안 삼대
- ㊵고사안골 : 무안 연상
- ㊷뿔골(금곡) : 상동 금산
- ㊹뜰골 : 상동 신곡
- ㊻절골(寺谷) : 상동 신곡
- ㊽텃골(基谷) : 청도 요고
- ㊿은주골 : 청도 요고
- ①이모골(仁牧洞) : 청도 인삼
- ②시루골(시리골) : 초동 금포
- ③둔덕골(둔도골) : 초동 명성
- ④제비골(연곡) : 초동 봉황
- ⑤절골 : 초동 오방
- ⑬모시밭골(저전) : 산내 용전
- ⑭석골(石骨, 석골) : 산내 원서
- ⑰안당골(내당골) : 산외 엄광 :
- ⑱통작골 : 삼랑진 심방
- ㉑배암골 : 삼랑진 안태
- ㉓뱀골 : 삼랑진 울동
- ㉕공궁이골 : 상남 남산
- ㉗땡골(당곡) : 상남 동산
- ㉙매나골 : 상남 동산
- ㉛안골(운내) : 상남 예림
- ㉝어은골(어은곡) : 상남 외산
- ㉟적은어은골 : 상남 외산
- ㊱갓골(관동) : 상남 조음
- ㊳갓골 : 상남 마산
- ㊵대밭골 : 상남 평촌
- ㊷대밭 골 : 무안 연상
- ㊹공골 : 무안 웅동
- ①나무골 : 무안 정곡
- ②협실골 : 무안 중산
- ④고장골(有長洞) : 청도 구기
- ⑥회골(回谷) : 청도 요고
- ⑧이중골(이궁곡, 離宮臺谷) : 초동 검암.
- ⑩삼막골(삼밭골) : 초동 덕산
- ⑫갓골(관곡) : 초동 반월
- ⑭자양골 : 초동 신원
- ⑯서당골 : 하남 수산

위에서 다소 설명을 덧붙일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의 점골(정골)은 옹기점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②도양골(조개골)은 조씨가 많이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③삼막골은 세 장수의 막사가 있었다고 하며, ⑤정승골은 예전에 정승이 귀양와서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⑧도롱골은 산 능선이 마을을 향해 돌아 누워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⑩장자골은 오래전부터 임씨가 살았는데 10대가 넘도록 만아들만 이곳에 살게 하고 차지는 딴 곳에 가 살게 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⑬석골(石骨)은 뒷산 바위가 층계로 되어있어서 뼈와 같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석골사가 있다. ⑳땅골은 당산제를 지내던 당나무가 있었다고 하여 당곡(堂谷), 이것이 변해서 땅골이 되었다고 한다. 당골→땅골의 변화는 된소리되기이다. ㉓매나골은 원래 매화나무가 많은 동네였다. '매화골' 혹은 '매목골'이었는데 이것이 매나골로 변한 듯하다. 즉 '매화나무골(매목골)→매화골→매나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매화나무가 전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㉕이중골(離宮谷)은 신라 22대 지증왕이 이곳에 이궁을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 한다.

### 1.3. 「~실」

- |                   |                  |
|-------------------|------------------|
| ①갓실(蘆谷) : 단장 무릉   | ②노리실 : 무안 정곡     |
| ③아치실 : 무안 가례      | ④무덤실(墓谷) : 무안 정곡 |
| ⑤노리실 : 무안 운정      | ⑥조무실 : 무안 정곡     |
| ⑦너실 : 무안 관곡       | ⑧명애실(鶯谷) : 밀양 가곡 |
| ⑨디터실 : 밀양 내이      | ⑩구덕실 : 부북 덕곡     |
| ⑪새덕실 : 부북 덕곡      | ⑫대실(竹谷) : 삼량진 송지 |
| ⑬우실 : 삼량진 우곡      | ⑭폭실(雨谷) : 상남 기산  |
| ⑮새미실(사미곡) : 상남 연금 | ⑯가실(佳谷) : 상동 가곡  |
| ⑰뒷실 : 상동 도곡       | ⑱도가마실 : 상동 매화    |



- |                        |                       |
|------------------------|-----------------------|
| ⑬듬실 : 청도 구기            | ⑳흙실(好音洞) : 청도 조천      |
| ⑭한실 : 초동 대곡            | ㉑새실(鳥谷) : 초동 봉황       |
| ⑮동쪽마실 : 부북 퇴로          | ㉒서쪽마실 : 부북 퇴로         |
| ⑯꿈실(雲谷) : 산내 가인        | ㉓새실 : 산의 금곡           |
| ⑰쇠실(金谷) : 산의 금곡        | ㉔안장실(鞍谷) : 청도 요고      |
| ⑱삿도실(삿두실, 沙道谷) : 초동 검암 | ㉕뒤실 : 상동 도곡           |
| ㉑무실 : 삼랑진 울동           | ㉖고내실(고노실, 古谷) : 상남 기산 |
| ㉒고실 : 상남 기산            |                       |

위의 「~실/곡」은 원래 골짜기의 이름이지마는 마을이름에 많이 나오는 것은 마을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①의 갯실(蘆谷)은 갈대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것은 ④의 무듬실, ⑫의 대실과 비슷한 유형이다. ⑧의 멩에실(鶯谷)은 밀양시 가곡동이 처음 생겨난 곳이다. 모양이 소의 멩에처럼 동네를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⑭폭실(雨谷)은 원래 작은 골짜기였는데, 큰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골이 커지면서 인가가 생겼다고 한다. 비에 산이 (음) 폭 꺼진데서 폭실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다. ⑱도가마실은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㉑쇠실은 옛날 금이 많이 났으므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㉒고내실(古內室)은 ㉓의 고실(古室)의 안쪽 위치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이는 고노실(古老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실보다 더 오래된 마을이라고 이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물론 ㉒고실은 주위보다 더 마을이 오래되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1.4. 「~각단」

- |               |               |
|---------------|---------------|
| ①동쪽각단 : 단장 미촌 | ②서쪽각단 : 단장 미촌 |
| ③새각단 : 무안 덕암  | ④들각단 : 무안 동산  |
| ⑤서당각단 : 무안 동산 | ⑥새각단 : 무안 마흘  |

- |                 |              |
|-----------------|--------------|
| ⑦새각단: 무안 응동     | ⑧주막각단: 밀양 내이 |
| ⑨중각단: 밀양 내이     | ⑩큰각단: 밀양 내이  |
| ⑪아래각단: 부북 오례    | ⑫웃각단: 부북 오례  |
| ⑬아래각단: 상동 매화    | ⑭위각단: 상동 매화  |
| ⑮새각단(新村): 초동 봉황 | ⑯새각단: 삼랑진 임천 |
| ⑰새각단: 상동 가곡     | ⑱새각단: 하남 남천  |
| ⑲새각단: 하남 대사     |              |

‘각단’은 마을을 뜻한다. 다른 형태소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많겠지만 ‘동-서’의 대립(동쪽각단-서쪽각단)과 ‘위-아래’의 대립은 있지만(웃각단-아래각단 등), ‘새-현’의 대립은 없는 편이다(새각단). 즉, ‘현각단’이나 ‘현마을’, ‘현골’, ‘현실’, 등은 지명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현-’의 의미자질이 [+남음], [+교체대상]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마을이름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택<sup>5)</sup>은 국호 ‘新羅’의 이름이 斯羅, 徐羅, 西良, 新良 등과 같이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적인 지명으로 안골, 뒷골, 앞내, 뒷외(두메) 등과 같은 ‘새터’라는 뜻이라고 했다. 斯羅·徐羅·西良·新良 등이 서로 별을 나타내는 표기였는데 이것의 뜻을 지금까지 대개 새나라(新國), 동국 혹은 동토(東土), 아니면 수릿고을(上邑, 首邑)로 해석해 온 견해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위의 말들도 한자와는 관계없이 ‘새터’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新良’이 되는 과정에서 한자식의 뜻표시(訓借)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21대 지증왕 때에 와서 ‘新羅’가 되고 비로소 중국식 왕호를 쓰면서 ‘新羅’라는 국명을 확정된 것이다.

四年冬十月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國名

5) 김종택(1992: 29~31참조)

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云新羅  
 巨等以爲 新者德業日新 羅者燻羅四方  
 之義 則其爲國號宜矣 (삼국사기 지증왕본기 4)

위의 기록에서 '國名未定'은 斯良, 厓良 등이 단순한 지명일 뿐 국호가 아님을 말해 주는데, 새터를 적는 여러 가지 표기 가운데서 新羅를 정함으로써 그 뜻풀이를 한문식으로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마을이름에 '새'가 붙는 일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땀」

- |              |                 |
|--------------|-----------------|
| ①서왕땀 : 단장 구천 | ②아릿땀 : 무안 동산    |
| ③아릿땀 : 무안 양호 | ④아래땀 : 부북 무연    |
| ⑤웃땀 : 부북 무연  | ⑥안땀(내땀) : 부북 월산 |
| ⑦아릿땀 : 청도 조천 | ⑧웃땀 : 청도 조천     |
| ⑨본땀 : 부북 위양  | ⑩본땀 : 부북 재대     |

'땀'은 '땨'과 같은 뜻으로 마을이나 동네를 뜻하는 말이다. 밀양의 마을이름에서는 땨는 없었다<sup>6)</sup>. 아마 지역에 따라 '땀'으로 불리워지기도 하고 '땨'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는 듯하다.

## 2. 「구역」계통

### 2.1. 「~터/지」

6) 김영진(1984 : 28)에는 '땀'은 없고 '땨'만이 있다. 중부지방은 '땨'인 듯하다.

- |                   |                 |
|-------------------|-----------------|
| ①구터(舊基) : 단장 감물   | ②음지(음달) : 단장 고례 |
| ③양지(陽址) : 단장 고례   | ④음지(음달) : 단장 국전 |
| ⑤양지 : 단장 국전       | ⑥새터(新基) : 무안 가례 |
| ⑦장새터(長在基) : 무안 고라 | ⑧구장터 : 무안 무안    |
| ⑨점터 : 무안 판곡       | ⑩새터 : 부북 춘화     |
| ⑪새터(新基) : 산외 금천   | ⑫새터 : 삼랑진 용성    |
| ⑬새장터 : 삼랑진 우곡     | ⑭양지 : 상동 신곡     |
| ⑮새터 : 상동 고정       | ⑯음지 : 상동 신곡     |
| ⑰양지 : 상동 안인       | ⑱음지 : 상동 안인     |
| ⑲평지 : 상동 안인       | ⑳넘어장터 : 초동 덕산   |
| ㉑장터(場基) : 초동 덕산   | ㉒새터(新基) : 초동 신호 |
| ㉓아래음지 : 하남 남전     | ㉔웃음달 : 하남 남전    |

‘터’에 관계되는 한자는 ‘基, 址, 地’로 나타난다. ‘새터’라는 마을이름이 6개나 나오는데 이 역시 인간의 심리를 엿보게 하는, 앞의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양달과 음달도 많이 나오는데 그 수는 거의 같다. ㉔는 웃음달로 ㉑의 아랫음지와 대립된다.

## 2.2. 「~거리/결」

- |                        |                    |
|------------------------|--------------------|
| ①북문결(북문안) : 밀양 내일      | ②비석거리(비석결) : 청도 두곡 |
| ③서문결(서문안) : 밀양 내일      | ④동문결(동문안) : 밀양 내일  |
| ⑤북성결 : 밀양 내일           | ⑥소전거리 : 삼랑진 삼랑     |
| ⑦정문결(아래긴늪, 정문) : 산외 남기 |                    |

주로 “-거리(결)”의 형태소는 공간 개념과 합성되어 있다. 7개 중 4개는 내일동

의 마을이름인데, 이곳은 과거부터 밀양에서 제일 변화한 곳이라 「~실」, 「~골」, 「~메」 등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교적 변화한 곳에 이런 류의 이름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 2.3. 「~뱅이」

- ①말뱅이(末坊) : 단장 사연                      ②새뱅이(塞方, 新坊) : 단장 안법  
 ③산뱅이(산봉이, 삼뱅이) : 무안 덕암        ④대뱅이(竹峯) : 단장 감물

‘뱅이’의 한자는 ‘方’이나 ‘坊’인데 [+방향] 또는 [+동네]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방(坊)’은 삼국시대부터 기능적인 집단끼리 모여 사는 곳을 지칭했다. 위에서 ①의 말뱅이는 한자와는 무관하게 역촌이라 말을 길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방→방이→뱅이’의 실현은 umlaut현상이지만, ‘方이나 坊’에서 ‘뱅이’가 되었는지 그 역으로 고유어이던 것이 문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뱅이→方 혹은 坊’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2.4. 「~태」

- ①상사태 : 청도 인산                              ②중사태 : 청도 인산  
 ③여시태 : 상남 연금                            ④안태 : 삼랑진 안태

여기서 태는 터(基나 址)와 의미적 관련이 있을 것 같으나 단정하기에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앞의 「~터」항목과는 따로 작성했다.

## 3. 「산」 계통

3.1. 「~메/미/산/봉」

- |                       |                         |
|-----------------------|-------------------------|
| ①누르미(느르미, 晩山) : 상남 마산 | ②말미 : 상남 마산             |
| ③오미 : 상남 외산           | ④들미 : 청도 인산             |
| ⑤똥매 : 초동 신호           | ⑥구리미 : 무안 동산            |
| ⑦똥메 : 하남 백산           | ⑧큰똥메 : 하남 백산            |
| ⑨보리미(麥山) : 산외 남기      | ⑩박미(박메) : 산외 회곡         |
| ⑪화산 : 부북 춘화           | ⑫땅미(坤山) : 산내 가인         |
| ⑬단산(주막) : 산외 금곡       | ⑭모산 : 산외 금곡             |
| ⑮기산(岐山) : 상남 기산       | ⑯남산(南山) : 상남 남산         |
| ⑰동산(東山) : 상남 동산       | ⑱인산(仁山, 배죽, 白足) : 상남 마산 |
| ⑲용산(龍山) : 상남 연금       | ⑳외산 : 상남 외산             |
| ㉑유산 : 상동 금산           | ㉒옥산 : 상동 옥산             |
| ㉓덕산 : 청도 고법           | ㉔백산(柏山) : 하남 백산         |
| ㉕검산(儉山) : 초동 검암       | ㉖수산(守山) : 하남 수산         |
| ㉗아릿은산(~隱山) : 하남 파서    | ㉘웃은산(~隱山) : 하남 파서       |
| ㉙은산(隱山) : 하남 파서       | ㉚대뱅이(竹峯) : 단장 감물        |
| ㉛가산(加山) : 단장 고례       | ㉜법산(法山) : 단장 법홍         |
| ㉝상봉(上峯) : 단장 법홍       | ㉞잔산(殘山) : 단장 사연         |
| ㉟중산(中山) : 무안 중산       | ㊱월산(月山) : 부북 월산         |
| ㊲금산 : 상동 금산           |                         |

①의 ‘누르미(느르미, 晩山)’는 ‘누르미’라는 산기슭에 있는 동네이다. 산이 느릿하고 경사가 완만하므로 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②말미는 ‘마산’이라는 동네 이름의 고유어인데 동네 뒷산이 ‘말(馬)’처럼 생겨서 지어졌다는 설과, 옛날 그곳에 馬山驛이 있었기에 ‘말(馬)’이 많아서 이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③의

오미는 오늘날 '吳山'으로 많이 불리워지는데 원래는 鰲山(혹은 龜山)이었다는 설과 '烏山'이었다는 설이 있다. ⑥구리미는 '銅山'으로 구리가 났다는 이유로 지어진 동네이름이고 ⑮의 '岐山(앞의 '고실' 부락이다)은 원래 '箕山'이었다. 이것은 중국 堯때의 은자 巢父와 許由가 숨어 살았던 箕山 潁水에서처럼 좋은 의미로, 마을이 '키'처럼 생겨서 이 이름으로 지어졌다 한다. 또 실지로 箕山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마을의 앞이 키의 앞처럼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막으면 부자마을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키의 앞을 막듯이 막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때 심은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다. 그 뒤 종남산(終南山)이 여기서 갈려졌다고 岐山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⑯ '남산'은 밀양의 이름난 산의 하나인 종남산(終南山, 683m)의 남쪽에 위치하므로 지어진 마을이름이다. ⑰인산(仁山)은 종남산 줄기가 어질게(밋밋하게) 뻗어 내려 온 곳에 마을이 위치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3.2. 「~재/고개」

①도래재(回嶺) : 단장 구천

②대밭고개 : 초동 검암

③솔고개 : 초동 검암

①도래재는 '돌아가며 넘는 재'란 뜻이고 ②③에서 '검암'은 '큰바위'란 뜻이다.

### 3.3. 「~릉」

①내무릉 : 단장 무릉

②무릉 : 단장 무릉

③아래평능 : 상동 금산

④위평능 : 상동 금산

⑤평릉 : 상동 금산

여기서 ‘릉(능)’은 ‘무덤’이란 뜻이 아니라 ‘언덕’을 나타낸다.

#### 4. 「토지」 계통

##### 4. 1. 「~밭」

- |                    |                      |
|--------------------|----------------------|
| ①감밭(柿田) : 단장 구천    | ②석바탕이(石田) : 단장 범도    |
| ③동화전(桐花田) : 단장 사연  | ④꽃밭(花田) : 무안 모로      |
| ⑤큰굴밭(大田) : 부북 운정   | ⑥평밭 : 부북 위양          |
| ⑦갈밭(蘆田) : 산내 송백    | ⑧송전(崇田) : 삼랑진 송진     |
| ⑨쑥밭(葦밭) : 삼랑진 용전   | ⑩신전(新田) : 삼랑진 용전     |
| ⑪직전 : 삼랑진 용전       | ⑫추밭골(秋田) : 삼랑진 우곡    |
| ⑬바깥솔밭(外松) : 초동 덕산  | ⑭안솔밭(內松, 솔안) : 초동 덕산 |
| ⑮서전(西田) : 하남 남전    | ⑯말바탕이(馬田) : 산내 남명    |
| ⑰다원밤밭(~栗田) : 산외 다죽 |                      |

⑯말바탕이는 ‘말바탕’, ‘마전’, ‘마전장’으로도 불리우는데 기마연습장이었다고 한다.

##### 4.2. 「~들」 계통

- |                      |                       |
|----------------------|-----------------------|
| ①외들(外野) : 산내 원서      | ②섬들(島坪) : 산내 임고       |
| ③뒷들[뒷마을] : 산외 엄광     | ④사자坪(獅子坪) : 단장 구천     |
| ⑤갯들(포평) : 상동 안인      | ⑥잣들(栢坪) : 산내 송백       |
| ⑦하坪(下坪, 삼박골) : 초동 덕산 | ⑧바들[바드리, 所月里] : 단장 고래 |
| ⑨작평(鵲坪) : 산내 임고      | ⑩범평(帆坪) : 초동 범평       |



⑪모래들(沙坪) : 초동 금포

⑫중평(中坪) : 초동 범평

②섬들은 사방으로 개울이 흘러 마치 섬처럼 이루어진 동네이다. ④사자평은 사자처럼 생긴 두 개의 바위가 있기에 지어진 이름이다. ⑤갯들은 '물가의 들'로 추정된다. 즉 '갯들'이 경음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잣들은 잣나무를 치고 전답을 개간했다는 뜻이다. ⑩범평은 낙동강물이 홍수 때 범람하면 뚝단배가 이 곳까지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5. 「물」 계통

### 5.1. 「~내/천」

①구천 : 단장 구천

②감내(甘川) : 부북 감천

③아래감내 : 부북 감천

④중감내 : 부북 감천

⑤덕걸(德川) : 산내 송백

⑥광태기(廣川) : 삼량진 울동

⑦임천(林川) : 삼량진

⑧웃세천 : 상남 동산

⑨중세천(중다) : 상남 동산

⑩하세천(아랫마) : 상남 동산

⑪조천(槽川) : 청도 조천

⑧~⑩은 임진왜란 직후 光山金氏가 성의 '金'을 더욱 빛내려면 마을 앞 냇물에 자주 씻어야 한다는 뜻으로 洗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현재도 김씨가 많이 살고 있다.

### 5.2. 「~개/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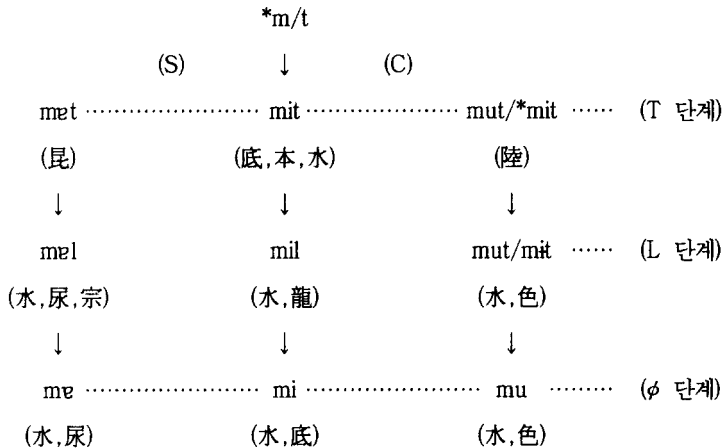
①장림포(長林浦) : 상동 안인

②용포(龍浦) : 청도 인산

- ③큰벌미 : 초동 명성
- ④작은벌미(新浦) : 초동 명성
- ⑤도로포(道老浦) : 초동 신호
- ⑥앞삼개(前沙浦, 前浦) : 부북 전사포
- ⑦뒷삼개(後沙浦, 後浦) : 부북 후사포
- ⑧중포(中浦) : 부북 후사포
- ⑨용포(龍浦) : 단장 무릉
- ⑩남포(南浦) : 밀양 가곡
- ⑪연포(鰲浦) : 부북 무연
- ⑫방개 : 상동 고정
- ⑬금포(金浦) : 초동 금포

‘개/포/미’는 모두 물과 관계가 있다. 대개 강어귀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흥미있는 이름은 ④작은벌미이다. ‘미’와 ‘물’과의 관련을 구조적으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기간자음 m/t를 바탕으로 하는 \*mit계 어휘 분화의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원초적인 어형은 mit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 화석화한 어형이고,

7) 김중택(1992 : 215~219참조)

자료가 보이는 의미 역시 가장 미분화된 원의미를 지낸다. 기본적인 어휘는, 의미는 물론 형태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음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mit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것이 인접률에 의하여 mut으로 분화하고 유사율에 의하여 met으로 분화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림에서 c와 s는 각각 인접률과 유사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 ……은 횡적인 분화과정을 보이고 →은 종적인 형태발달 과정을 보인다. 여기서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mit-mil-mi〉계만 살펴보자.

- 味鄰王(本始), 味鄰忽(底, 濕), 민곧(本), 민거집(本), 민얼굴(本) 등……………  
……………mit계
- 彌離彌凍國(milmit : 密陽), 推火(milbi : 密陽), 미르, 미상(龍, 辰), 미리내(銀河)  
……………mil계

위의 mil계에서 l이 탈락된 l>∅의 과정을 거쳐 mi로 화석화되어 정착하게 되는데, 買忽(mihol : 水城), 南買(南川), 內乙買(沙川), 軍彌(泗川) 등의 고지명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지금도 접사적인 용법으로 물을 뜻하는 형태소 mi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미나리’가 물에 사는 나리이고 ‘미우리’는 물에 사는 ‘구리’요, ‘미역’은 물에 사는 ‘여귀’인 것이다. 미늘, 미더득, 미세기도 물과 관련되고, 현대의 지명 중에도 멩덩미(湄川), 미지미(山格), 날미, 오갈미 등 부기지수이다. 따라서 밀양의 ③ 큰별미와 ④ 작은별미는 물가와 관련을 가진 마을이름이다.

### 5.3. 「~소」

- ①용소(龍沼) : 단장 감물
- ②까막수(烏沼) : 무안 동산

②까막수는 ‘소(沼)’의 이름으로 된 마을인데 소 옆에 있는 정자나무에 까마귀집

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 5. 4. 「~나루」

- ①괴나루(귀나리, 괴진) : 무안 고라
- ②삼랑진(三浪津) : 삼랑진
- ③참나무진(眞木津) : 무안 마홀

②의 삼랑진은 삼랑은 밀양강과 낙동강이 합해져 마을을 싸고 흘러가므로 삼랑 즉 '세 물결'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③의 참나무진은 참나무가 많아서 지어진 마을이름이다.

#### 6. 「지형지물」 계통

##### 6. 1. 「~숲」

- ①땅개숲(堂浦) : 단장 태룡
- ②신숲 : 무안 덕암
- ③당숲 : 청도 구기
- ④조음숲 : 상남 조음

④조음숲은 마을 앞 은산(隱山, 하남 파서)의 바위가 마을을 바라보는 형상이 보기 흉하다 하여 조성한 一자 모양의 숲이었다.

##### 6.2. 「바위/암」

- ①매방우(응암) : 단장 구천
- ②덕암(德岩) : 무안 덕암
- ③동암(구렁이) : 부북 전사포
- ④마암(馬岩) : 부북 전사포
- ⑤금암(錦岩) : 산내 임고
- ⑥비암 : 상동 가곡

- ⑦수리덤(車岩) : 청도 요고
- ⑧두암(斗岩, 豆岩) : 초동 금포
- ⑨적은 두암(小斗岩) : 초동 금포
- ⑩우암(牛岩, 畝岩) : 초동 명성
- ⑪통바우(桶岩) : 초동 성만
- ⑫소바우(牛岩) : 하남 양동
- ⑬검암(儉岩) : 초동 검암

⑦수리덤의 ‘덤’은 경남방언에서 ‘바위’를 뜻한다. ⑬의 검암은 ‘큰바위(거암)’에서 나온 지명이다.

### 6. 3. 「~정」

- ①괴목정(槐木亭) : 산내 가인
- ②기목정 : 산외 회곡
- ③가정자 : 삼랑진 청학
- ④고정(高亭) : 상동 고정
- ⑤안정 : 상동 신곡
- ⑥서가정(西佳亭) : 무안 가례
- ⑦월연정(月濂亭) : 밀양 내일
- ⑧무정 : 부북 무연

정자에서 따온 마을이름들이다.

### 6. 4. 「~목」

- ①용두목(龍頭목) : 밀양 가곡
- ②큰목(大項) : 부북 대항
- ③의목 : 상동 금산

①의 용두목은 산의 형상이 용의 머리처럼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 7. 「위치」 계통

- |                   |                           |
|-------------------|---------------------------|
| ①못안(池內) : 무안 동산   | ②도안 : 무안 무안               |
| ③물안 : 무안 무안       | ④동문안(동문걸) : 밀양 내일         |
| ⑤북문안(북문걸) : 밀양 내이 | ⑥서문안(서문걸) : 밀양 내일         |
| ⑦못안 : 부북 덕곡       | ⑧정내(程內) : 무안 내진           |
| ⑨골안 : 상동 고정       | ⑩골단(고란, 소구리금, 谷內) : 상남 외산 |
| ⑪신안 : 상동 안언       |                           |

⑩골안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고란’으로 불리워진다. 여기의 모든 예는 ‘안’과 관련되어 있는데 대립적인 ‘밖’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흥미롭다. 마을이름을 지을 때 짓는 사람들 중심으로 짓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Ⅲ. 마무리

지금까지 논한 것을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1) 이 글은 밀양의 지명 중 마을이름에 한정했고 방법론상으로는 의미유형별과 형태소별로 서술했다.

2) 밀양은 크게 ‘리리미동국→추화군→밀성군→밀주→귀화부곡→밀성군→밀양부→밀양도호부→밀양군→밀양시·군’로 변천되어졌다.

3) 의미유형별·형태소별 마을이름의 집계를 내면 다음 <표-1>과 같다.

4) 마을이름의 의미유형이 동네 자체 외에도 구역, 산, 토지, 물, 지형지물 등 자연과 관계되는 것도 많아 마을이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어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5) 단일어로 이루어진 마을이름은 전무한 실정이고 모두가 합성어나 파생어로 되어 있다.

6) 한자어보다 순우리 말로 구성된 마을이름이 대부분이다.

7) 마을이름의 의미가 뚜렷하다.

〈표-1〉

의미유형 형태소	동 네				구역				산			토지		물			지형지물				위치	계	
	말/마	골	실	각단	땀	터/지	걸/거리	뱅이	태	매/미/산/봉	재	릉	밭	들	내/천	개/포/미	소	나루/진	숲	바위/암			정
마을수	75	66	33	19	10	24	7	4	4	37	3	5	17	12	11	13	2	3	4	13	8	3	11
계	203				39				45			29		29			28				11	384	

8) 대립적인 말이 짝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짝이 있는 이름 : 양달-음달, 옷땀-아래 땀, 동문걸-북문걸, 위각단-아래각단, 동쪽각단-서쪽각단, 바깥솔밭-안솔밭, 앞샅개-뒷샅개 등
- 짝이 없는 이름 : 새마>(\*현마), 새각단(\*현각단), 새타(\*현터), 안땀(\*바깥땀), 큰골(한골)-(\*작은골) 등

9) ~실, ~골, ~각단, ~땀 등은 농촌이나 산촌마을에, ~거리(걸), ~안 등은 변화가나 성안의 이름에 나타난다.

10) 좋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금기어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은 찾기 어렵다.

11) 어원을 추적하기에 적절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름도 있다.

### 참 고 문 헌

곽재용(1991), 밀양군 상남면의 마을 이름에 대하여, 밀양문학4집.  
 김영진(1984), 예산지방의 지명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태(1983), 지명연구에 대하여, 추강 황희영박사 송수기념논총, 집문당.

- 김재문(1977), 서부경남 방언의 음운연구, 진주교대논문집15.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탐출판사.  
김형철(1992), 어휘론 연구사, 제35회 전국 국어국문학회 발표요지  
박정수(1985), 산청지방의 마을 이름에 대하여(Ⅱ), 부산한글 4집.  
양태식(1984), 「국어 구조의미론」, 태화출판사.  
허 응(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경상남도 땅이름」(1968),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밀양지」(1987), 밀양문화원.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우리말 큰사전」(199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9(경남편 Ⅱ)」(1980), 한글학회.